

# 쉽고 명료한 '단사랑' '퍼퓸'... 시청자들 '찜'



KBS 2TV 수목극 '단, 하나의 사랑'



KBS 2TV 월화극 '퍼퓸'

KBS 2TV 수목극 '단, 하나의 사랑'과 월화극 '퍼퓸'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스토리 라인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다.

19일 CJ ENM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6월 둘째 주(10~16일) 콘텐츠영향력 평가지수(CPI·하단용어설명 참조) 집계에서 '단, 하나의 사랑'이 전주에 이어 9위를 유지했다. CPI 지수는 218.3. '퍼퓸'은 22위(199.5)에 랭크됐다.

'단, 하나의 사랑'은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7~8%대를 유지하며 수목극 1위를 달리고, '퍼퓸' 역시 상대적으로 느슨한 월화극 시장에서 8회까지 6~7%대 안정된 성적을 내고 있다.

'단, 하나의 사랑'은 발레라는 특수 소재를 끌어들이지만 주된 스토리는 시력을 잃은 발레리나의 재기 과정과, 발레리나와 천사 간 사랑이다.

다소 허무맹랑한 동화처럼 보일 만한 스토리이지만 주연인 신혜선과 김명수가 각자 캐릭터를 맞춤형 입은 듯 소화하면서 극에 몰입감을 더한다. 특히 신혜선은 상처 많은 발레리나를 섬세하게 연기하면서 극을 땀 앞에서 끌고 있으며, 김명수도 순수한 천사를 통통 튀는 매력으로 소화한다는 평이다.

## 완성도 아쉽지만 완급조절·코믹감성으로 고정팬 확보 단순하고 명료한 스토리·편안한 재미 갖춰 안정된 인기

여기에 발레단 내부 이야기와 천사 세계 내 독특한 규율 등 잔가지가 얹히면서 스토리가 좀 더 풍성해졌다.

물론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남녀주인공의 로맨스에 집중하지 않고 사족처럼 보이는 내용이 큰 비중으로 그려지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지만, 다음 회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엔딩컷 등 자연스러운 완급조절로 동력을 유지 중이다.

20~49세 타깃 시청률에서 4%대 높은 성적을 내며 젊은 층 지지를 받는 '퍼퓸'의 인기 비결은 배우들의 호연과, 판타지와 현실의 코믹한 결합으로 꼽힌다.

고준희 대타로 나선 고원희는 신성록과 꽤 괜찮은 코믹 호흡을 보여준다. 어딘가 빈틈 있어 보이면서도 친근한 이미지가 로맨틱코미디(로코)라는 장르에는 오히려 적합하다는 평이다. 패션을 소재로 한 로코가 세련되고 철두철미하게만 그려졌다면 오히려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아울러 '퍼퓸'은 판타지 장르이지만 내용 전개는 극히 현실적으로 그려진다는

데서 공감을 얻는다. 두 작품은 최근 로맨스극이 흥수를 이루는 가운데 로맨스 핵심은 결국 트렌디한 콘셉트보다는 스토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 작품들처럼 이미 한 번 봤던, 진부할 수도 있는 소재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시청자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리 트렌디한 소재라도 콘셉트만 있고 줄거리와 에피소드가 없다면 공감받기 어렵다는 걸 방영 중인 타

로맨스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두 작품을 100%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허술한 구석이 많다. 다만 특출난 작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 명료한 스토리와 편안한 재미를 갖춘 작품이 그래도 안정된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CPI 지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CJ ENM 7개 채널(tvN·Mnet·OCN·온스타일·OtvN·울리브·XtvN)에서 프라임 시간대 방송하는 드라마, 연예·오락, 음악,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 대상으로 인기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연합뉴스

## 논란 지운 진한 멜로... '바람이 분다' 시청률 5% 돌파

감우성과 김하늘의 감성 깊은 멜로 연기는 초반 불거진 코 특수 분장 논란을 뛰어넘기에 충분했다.

1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 방송한 JTBC 월화극 '바람이 분다' 시청률은 5.2%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날 방송에서는 수진(김하늘 분)이

도훈(감우성)의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알게 된 모습이 담겼다. 기억을 잃어가는 도훈과 이별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된 수진의 오열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MBC TV '검법남녀'는 6.1%~7.7%, KBS 2TV '퍼퓸'은 4.8%~6.7%, SBS TV '조면에 사랑합니다'는 3.4%~4.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고은 "다른집 밥상에서 한 수 배워야죠"

요리에능 '밥친구' 22일 방송  
인상깊은 요리 '전복 가마솥밥'



한고은

"집밥을 받아본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 같아요."

스카이드라마 요리 예능 '밥친구'의 배우 한고은(44)은 새로운 집밥 요리를 배우는 데 대한 기대감을 이리 표했다.

'밥친구'는 한고은과 셰프 강래오(43), 방송인 서장훈(45), 이상민(46)이 SNS에서 요리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들을 만나 이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예능이다.

한고은은 19일 마포구 상암동 DDMC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집밥을 매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밥을 하다 보면 한계에 도달한다. 다른 집은 무엇을 해 먹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밥친구'를 통해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고 한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요리로 '전복 가마솥밥'을 꼽으며 "집에 가서도 사흘 동안 생각 날 정도로 맛있었다"고 했다.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로 알려진 서장훈은 "최근 녹화한 집 중에 '옥주부'로 활동 중인 개그맨 정종철 씨 집이 있었는데 음식 맛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유명 셰프 강래오는 "(보통은) 제가 나가서 음식을 하는 게 주가 되는데 '밥친구'는 제게 밥을 해서 내어주시는 게 좋았다"며 "SNS에 나오는 개성 있는 요리들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기회인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상민은 "혼자 밥을 먹는 지 꽤 되다 보니 혼자 식사하는 게 편하다"며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요즘 집밥 천재들의 레시피를 보고 맛있는 한 끼를 드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서현석 PD는 "집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며 "주부들이 매일 아침 저 요리는 한 번쯤 해 먹어 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음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2일 오후 7시 50분 스카이드라마 채널 첫 방송. /연합뉴스

## '민고 듣는 보컬' 윤하·에일리 내달 나란히 컴백

'민고 듣는' 여성 보컬로 불리는 윤하와 에일리가 다음 달 새 앨범으로 나란히 컴백한다.

윤하는 7월 초 미니앨범을 내며, 에일리는 7월 2일 정규 앨범 '버터플라이'(butterFLY)를 내놓는다. 이번 새 앨범에서는 '오늘 헤어졌어요', '기다리다' 등 발라드 감성을 잇는 음악을 선보인다.

파워풀한 가창력이 매력적인 에일리로 2017년 2월 싱글 '낮은 그리움' 이후 2년 5개월 만에 신보를 선보인다.

에일리는 데뷔 이후 '헤븐'(Heaven)과 '보여줄게', '손대지마' 등 히트곡을 냈으며 '도깨비',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돌아와요 아저씨' 등 여러 드라마 OST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야사 쿵도령 2		25 푸리가 식사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재)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이몽(재)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도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조포착 세상에 이르면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습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색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다큐동화 달팽이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15 띠띠뽀 띠띠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40 다큐 시선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띠띠뽀 띠띠뽀(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댕 유치원1~2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시청자와 함께하는 4부 간 많은 부자의 마법의 섬, 뉴질랜드>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5:00 탐원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나의 친애하는 동물 친구들 4부>
09:00 마사와 곰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50 다큐 시선
09:30 물랑	16:00 예술아 놀자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b>子</b> 36년생 각별히 신경 쓰자. 48년생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 들어지지 않는다. 60년생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으니라. 72년생 확일하면 시간이 발전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 84년생 허심탄화하게 상의 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6, 60</p>	<p><b>午</b> 42년생 잘 따져봐야만 차질이 없었다. 54년생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야 할 때다. 66년생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 보해야만 한다. 78년생 제반사가 서서히 풀려 나갈 것이니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된다. 90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63, 36</p>
<p><b>丑</b> 3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 된다. 49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한국이다. 61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기에 충분하다. 73년생 살피 불일이다. 85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85, 41</p>	<p><b>未</b> 43년생 화근이 보인다. 55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다. 67년생 긴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79년생 가까스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게 될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별 다른 의미가 없었다. 91년생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4, 82</p>
<p><b>寅</b> 38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50년생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62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74년생 고르게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86년생 열린 마음이 많은 기회를 담보하라. 행운의 숫자 : 11, 64</p>	<p><b>申</b> 44년생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56년생 주의를 다 한다면 무탈하리라. 68년생 전면적인 실행을 요하니 추진력을 높여야 할 때다. 80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92년생 적절한 형태의 사전 예방이 최상이다. 행운의 숫자 : 08, 57</p>
<p><b>卯</b> 39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아야만 영광을 유지하게 되리라. 51년생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손실이 없을 것이다. 63년생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75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87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02, 74</p>	<p><b>酉</b> 45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57년생 기초부터 재검토 해봐야 할 상황이다. 69년생 유능한 이들과 함께 길사를 도모할 수 있었다. 81년생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리라. 93년생 파스한 행운의 햇살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1, 06</p>
<p><b>辰</b> 40년생 내부에서의 노력보다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 52년생 함께 하는 것이 낫다. 64년생 분명히 장고한 후에 판단할 일이다. 76년생 조건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88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1, 42</p>	<p><b>戌</b> 34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46년생 일단 수용하자. 58년생 짜임새 있는 설계가 발전적인 판단을 기약한다. 70년생 구체화 되면서 가능성을 높여가게 되느니라. 82년생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창의적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8, 92</p>
<p><b>巳</b> 41년생 실속이 약하다. 53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 예까지 수월할 것이다. 65년생 치우친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제 국면에 이른다. 77년생 길상이니 하는 일 마다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89년생 힘들더라도 제대로 포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53, 78</p>	<p><b>亥</b> 35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47년생 시체에 적응하다보면 혼란이 을 수 있다. 59년생 가끔씩 빨리 시작 하자. 71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제3자의 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39, 28</p>